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전우회 2025년도 정기총회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3월 27일 공군호텔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합참 전략본부장(공군중장),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산하/협력단체장과 임원, 중앙회 정회원, 국내 각 지부/지회장과 임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국민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군현역/군무원 2명에게 보라매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자랑스런 공군인상,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공로상 및 공군참모총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이계훈 회장의 인사말과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곤 감사의 감사 보고 후, 심의의결 안건으로 '2024년도 수지 결산안'과 '2025년도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이후 공군가 제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이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며 회원들간 친목도모는 물론 현역과 예비역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서로 정을 많이 나누는 한해’를 목표로 설정하고 더욱 소통하면서 회원들간의 화합단결은 물론 현역과의 유대강화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공군도 최근의 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데 공군을 거처온 우리라도 현역들이 힘을 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성원과 응원을 보내자”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공군본부에서 준비한 ‘공군정책 소개’ 영상 시청 후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명단

○보라매상
공군소령 이화연(공군본부), 사무관 안대웅(공군본부)
항공과학고총동창회(단체)

○자랑스런 공군인상 : 이중근(공군ROKAFIS 회장)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 김동련, 이능자(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

○공로상
이군신 (청주지회장), 김한웅(중앙회 부회장), 박문석(성남지회장), 구한서(철원지회장)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김석찬(공군ROTC장교회장), 고석인(중앙회 부회장) //

조성민 소령 ‘2024 공군 최우수 조종사’ 영예

공군은 2월20일 공군호텔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조종사는 전 비행대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비행경력, 실제 참가 작전, 근무 및 수상실적, 비행·지상안전, 체력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79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공군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탑건(Top Gun)’과 함께 공군 조종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로, 전반적인 전투기량과 동료 평가, 부대 생활 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탑건과는 다른 점이다.

이번에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된 조 소령은 총 21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11전비 110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으로 영공방위 최일선

에서 활약했고 현재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공중전역기획담당으로 근무 중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 김신장군기념사업회장이 조 소령에게 ‘김신상’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김신상’은 제6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신 장군의 삶과 뜻을 기리고자 사업회의 제안에 따라 최우수 조종사에게 지난해부터 시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 3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전투기 부문에서는 39비행단 KF-16 조종사 이구용 소령이, 공중기동·감시통제·급유 부문에서는 5공중기동비행단 CN-235 조종사 장현재 소령이, 교육·훈련 부문에서는 1전투비행단 T-50 조종사 박진웅 소령이 각각 선정됐다. //



이계훈 회장 대구지부 격려 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3월 20일 대구지부 정기총회 및 지부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지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의안심의, 2부 행사인 기념식은 국민의례, 공군 홍보영상 시청 및 24년도 대구지부 활동상, 중앙회장의 공로상 수여(3명), 대구지부장의 감사장 수여(3명), 보라매 장학재단의 복지대상자 5명에 장학금 전달에 이어 연임하게된 남상식 지부장의 대회사, 중앙회 회장의 격려사, 공군가 제창으로 마무리 하고, 3부는 오찬 및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날행사는 시내 문화웨딩빌딩에서 내빈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 이 회장은 격려사에서 “대구지부가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간 친목도모 활동 및 장학재단 운영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중앙회에서는 올해 목표를 ‘서로 정을 많이 나누는 단합하는 한해로 정하고 회원간 친목도모는 물론 현역과 예비역간의 유대강화에도 애쓰고 있다”며 대구지부도 회원간 친목도모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KB 국민은행, 공군발전협회에 발전기금 전달

KB국민은행 임원진(부회장 서영익) 5명은 4월 8일 공군호텔에서 이계훈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서 부회장은 “공군발전협회 주요 목적사업 및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공군과 공군발전협회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 이 회장은 “KB국민은행이 협회 발전기금을 지속 후원해오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KB국민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공군발전협회 후원단체로서 2018년도에 이어 기부금을 지속 후원해 오고 있다.//



54기 공군항공과학고 졸업 및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이계훈 회장은 2월 26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54기 공군항공과학고(이하 항공고)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이도은 하사에게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 상장 및 부상과 메달을 직접 걸어주며 격려했다.

이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임관자 가족과 친지, 교육사 장병들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4기 항공고 졸업 및 임관식’에는130명의 신입 부사관들이 지난 2022년 항공고에 입학해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물론이고, 항공기술 전문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임관식은 졸업증서 수여와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수여, 시상, 임관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계훈 회장 원주지회 격려 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2월 13일 원주지회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내 해송음식점에서 열린 이취임식행사에는 원주시장을 비롯한 내빈 20명, 지회원 80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시상, 기념패 전달, 회보보고, 이임사, 지회기 이양, 취임사에 이어 중앙회장 및 원주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신종균 지회장은 “역대 지회장단이 이루어 놓은 기반을 토대로 지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가야 한다는 말처럼 지회원 모든분들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본회 이 회장은 지회발전에 공헌한 김구식 이임지회장과 2명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으며, 축사를 통해 “원주지회가 지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지회발전은 물론 서로 정을 많이 나누는 단합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 신년 정책간담회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 연구원은 1월 16일 공군항공안전단에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정책실장 등 현역과, 공군발전협회 회원/고문/자문위원,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신년 간담회는 이계훈 공군발전협회장 환영사,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의 공군 주요 핵심현안 설명과 질의 응답에 이어 윤 우 항공우주력연구원의 항공우주력 연구원 2024년도 주요활동 실적과 2025년도 주요활동계획 및 공군발전협회 발전방향 소개와 제13회(2025년도) 안보학술회의 주제선정안 발표가 있는 후 자유발언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계훈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공군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현역과 예비역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뜻 깊고 유일한 자리이며, 간담회 내용을 현역과 예비역은 서로 잘 이해하여 예비역은 공군발전을 위해 어떤 곳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인지? 현역들은 예비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본 인참부장 내방

공군본부 주성규 인사참모부장 외 2명이 1월 13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취임인사차 예비역단체를 방문한 주 부장은 공군인참부 주요현안을 소개하였으며, 본회 이회장은 “취임을 축하하며, 특히 예비역단체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찬 공군 ROTC 장교회장 내방



김석찬 공군 ROTC장교회장이 1월 22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본회 발전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공군 ROTC 장교회의 주요 활동현황을 보고한 후 공군전우회 발전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를 제의 하고 함께 논의시간을 가졌다.//

심인태 LA 지회장 내방



미 LA지회 심인태 지회장이 3월 5일 중앙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심 지회장은 미 LA지회 주요 활동사항 등을 보고 후, 특히 오늘날 한국공군의 기원이 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설립하는데 전폭적인 재정후원을 한 미주 독립운동가 김종립 선생의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독립운동가 김종립 선생 소개 참조) 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이 회장은 “미 LA 지회가 심 지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에 고맙다”며 “김종립 추모행사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더욱 개선 발전시켜달라”고 말했다.//

윤종상 회원 초청 감사 오찬



본회 이계훈 회장은 2월 5일 윤종상 회원 (병 3기, 상사, 94세)을 공군호텔로 초청하여 환담을 나누며 오찬을 함께했다.

이 회장은 “윤 회원님께서 공군전우회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2007년도 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후원(누적후원금액 1315만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기념품을 증정해 주었다. 한편 이날 윤 회원은 전우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신임 연구위원 위촉



공군발전협회 이계훈 회장은 4월 7일 본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 신임 연구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김태욱(예 준장, 청주대 객원교수, 한양대 특임교수), 이흥철(예 대령, 전 공군군수사 항공기술연구소장)이다.

이 회장은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의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 위촉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우주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2명을 포함하여 현재 총 74명이 활동중에 있다.//

공군발전협회 제13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안내

■ 일시·장소 : 2025. 5. 28.(수) 09:30~13:30 / 공군호텔

■ 주제 : “항공우주력에 의한 억제와 승리”

■ 주요참석자

국회 국방위원,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예비역 장성, 안보전문가, 공군협회 연구위원, 언론사 기자, 군 현역 간부 등 180~200명

■ 개최식

- 개 회 사 : 이계훈 공군발전협회장
- 축 사 :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 기조연설 : 원인철 전 합참의장 [항공우주력의 위상과 과제]

■ 학술회의

- 사회자 : 정헌주(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
- 발표
 - 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첨단기술과 억제력의 상관관계”
 - 심현석(방위사업청 첨단항공엔진개발 파트리더) “안정적 전력운동을 위한 핵심 과제(첨단엔진)”
 - 이용식(국방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주변국 기술발전 추세와 대응방향”
- 토론자
 - 손한별(국방대 안보연구센터장)
 - 양낙규(아시아경제 기자)
 - 박찬우(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후원 : 국방부, 공군본부

한·미 ‘2025 자유의 방패’ 연습

한미가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25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한미는 FS 연습에서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합 대응 능력을 높였다.

FS 연습에는 우리 군 1만9000여 명이 투입됐다. 아울러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했다.

한미는 올해 FS 연습기간 연합 FTX를 지난해(10건)보다 증가한 16건 시행했다. 특히 드론 공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공격 시나



리오를 반영해 훈련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절차도 익혔다.한편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을 매년 2차례 실시한다.

전반기엔 FS 연습을, 하반기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한다.//

학군장교 임관식



전국 119개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정예 장교로 성장한 신입 학군장교 2758명이 임무 완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ROTC)이 후보생 꼬리표를 떼고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신임장교는 여군 402명을 포함해 육군 2450명, 해군 84명, 공군 146명, 해병대 78명 등이다. 임관식에는 각 군 주요 인사, 각 대학교 총장, 가족·친지 등 1만8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장교 임관을 축하하고 앞길을 응원했다.//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받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43%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국회는 3월2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를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둘째부터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과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월 10일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목적으로 매년 열린다. 회의에는 통합방위 관계기관들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군, 국가정보원(국정원), 광역자치단체,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과 교란 등

에 대해 전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열렸다.회의는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으로 문을 열었다. 울산시와 육군32보병사단, 해군3함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받았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시범 1호기 출고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Low Observable Wingman UAV System) 기술시범기 1호기’가 출고됐다.

이번 시범기 출고는 국내 유·무인 복합 항공체계의 첫 실증사례로 군은 2027년경 유·무인 복합 비행시험 진입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은 2월 25일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플랫폼인 저피탐 무인 편대기 기술시범기 1호기 출고 기념행사를 했다.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복합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 아래 정찰·전자전·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다.//

광화문에 6·25 참전국 기리는 ‘감사의 정원’ 만든다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가와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월3일 시청에서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며 “600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에 들어설 상징조형물 ‘감사의 빛 22’는 참전국가를 상징하는 5.7~7m 높이의 22개 검은 화강암 보(硿)로 이뤄진다. 각 나라에서 채굴된 석재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에는 참전국가 고유 언어



로 애송시, 문학작품 등을 새겨 희생을 기리게로 했다. 조형물 위에는 미디어 장치를 이용해 허공에 쏘아 올린 태극기를 연출하기로 했다.세종로공원은 경복궁의 넓고 트인 공간감과 대비되는 밀도 높은 도심 숲으로 조성된다.

공원은 총면적 8768㎡ 규모로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식음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선다. 완공 목표는 2027년 5월이다.//